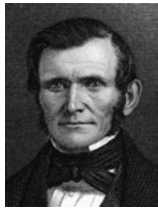


조셉 스미스가 십이사도 정원회에 왕국의 사업을 계속해 나가라는 책임을 주다

월포드 우드럽(1807~1898) 회장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1844년 봄에 사도들과 함께한 모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.



“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조셉 스미스는 . . . 십이사도들을 . . . 불러 여러 날 동안 우리에게 엔다우먼트를 베풀고,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 주신 영광스러운 원리들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냈[습니다.] . . . 한번은 그가 우리 가운데 서서 거의 세 시간 동안,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이 마지막 날에 지상에서 행하신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관해 말씀했습니다. 방은 타는 불과 같은 것으로 가득 찼으며,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, 그의 얼굴은 광채를 발하고 투명하게 보였으며, 현세에서나 영원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설교를 다음과 같은 말로 마쳤습니다.

‘형제 여러분, 저는 하나님 왕국의 열쇠들을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인봉하지 않고 제가 지닌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해 왔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교회와 시온과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하고 건설하며, 인자의 오심에 대비하여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, 하나님 왕국의 모든 열쇠를 제 머리에 인봉하셨습니다. 형제 여러분, 살아서 이날을 볼 수 있도록 제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엔다우먼트를 주고,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제게 인봉해 주신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의 모든 권능과 사도 직분 및 그에 따르는 모든 열쇠와 권능을 인봉해 드렸으며, 이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모든 일과 짐과 걱정거리를 여러분의 어깨 위로 넘겨 드리면서,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하늘과 땅 앞에서,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와 하나님 왕국에 관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명합니다.’(『교회 회장들의 가르침: 월포드 우드럽』[2004] 20~21쪽, 번역 수정)

-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가?
- 사도들이 하나님 왕국의 열쇠들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까닭은 무엇인가?